

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전남도 제출안 대부분 반영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의원 발의·농민단체 안 제의
30일 본회의 통과 진행 예고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와 남겨놓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 전남도·이보라미(정의당)의원·농민단체 등이 제출한 조례안을 병합해 심의한 뒤 대안 조례안을 자체 발의, 통과시켰다.

상임위가 발의한 조례안은 전남도가 제출한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22개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상정했다는 게 도의회 상임위원회 설명이다.

지급 대상의 경우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정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인 24만 3000여명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같은 방식을 택했다. 전남도는 연간 60만원씩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수준에서 결

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초 이보라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도의원들의 조례안과 농민단체 중심의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남도가 제출한 안에 비해 지급 대상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급 대상이 최대 34만여명까지 늘어나고 전체 지급액도 4173억원까지 확대된다는 게 도의회 분석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협약을 맺은 만큼 대안 조례안

이 그런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농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선택한 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송환법 반대' 주제가 부르는 홍콩 시위대

범주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주말 진화가 16주 연속 이어진 가운데, 22일 홍콩 위안왕 지하철역 인근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의 주제가로 일컬어지는 노래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을 부르고 있다. 쇼핑몰 내부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지만, 이후 거리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에 다시 회염병과 최루탄이 오갔다./연합뉴스

공공비축미 12만4000t 매입

전남도, 23일~12월 31일까지

전남도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 12만4000t을 매입한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는 11월 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남지역 매입량은 전국(48만 6000t)의 25.4%를 차지한다. 포대벼 친환경벼 3000t을 포함해 10만4000t, 산물벼 2만t이다. 농가별 매입량은 공공비축을 바라는 마을의 리·통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매입 품종은 시군별 공공비축미작업정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품종이다. 대형포장 800kg 벼는 40kg 포대 가격의 20배를 적용하고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40kg당 포장 비용 894원을 제외한 가격이다. 올해 매입 대금은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한 후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납자는 상계처리를 동의할 경우만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품종 검정제'를 위해 5%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한다. DNA 검사에서 품종 혼입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벼 출하 농가는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내년부터 유치원 급식비 지원

급식 질·학부모 교육비 절감 기대

다섯 살 배기 딸을 둔 한 시의원의 노력 덕분에 광주지역 유치원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22일 "2019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지난 20일 열고 2020년부터 초·중·고에 이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식품비도 70% 추가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공·사립 유치원 291개원 2만 4000여명의 171당 2260원의 식품비가 지원된다. 유치원 식품비까지 지원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612개교 20만여 명의 학생이 급식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시의회 최영환(민주·비례·사진) 시의원은 "한 참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광주 5개교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급식이 제



공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매월 정부에서 원아 1명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매월 지급받는 원아 1명당 22만원의 유아학비를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 의원이 유치원 운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자신의 딸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최 의원은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6곳 가까이 최근 5년 사이 원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며 "유치원 원장 자격 심의를 강화해 비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들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을 갖춰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유치 나서

도, 산림 분야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임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소재화 및 산업화를 위해 산림 분야 관련 단체들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이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2020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바이오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 기술센터, 대규모 생산단지 등의 조성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국·도·보조사업이다.

협약식에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와 (사)숲속의 전남,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전라남도지회, (사)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라남도지회, 한국양묘협회전라남도지회, 전남산도임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산림바이오 소재·수출발굴 및 양묘 생산과 가공산업 활성화 협조, 선도임업인 육성 임업전문 교육과 창업 기술지도, 전남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바이오 산업 분야는 ▲항암 및 면역강화, 건강식품, 성인병 예방 및 개선 식품 등 식품소재 ▲미백, 자외선차단 등 화장품 소재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물 의약품 등 의약품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성장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전남에는 난대수종이 9054ha에 분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넓어 미래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경섭씨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변경섭(60·사진)씨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광주시가 22일 밝혔다.

변 선임 이사장은 1987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24년 간 재직하며 금융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역량을 키워온 금융전문가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19일까지 3년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월 26일 이사장 모집



공고를 거쳐 응모자 9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 4명에 대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진행, 이사회에 추천할 2명을 선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이 시장이 지명한 변 선임 이사장 후보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정문회가 열렸으며, 17일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형호 기자 khh@

2019 Yeonggwang e-mobility Expo

생활을 @롭게!
미래를 신나게!

2019 영광 모빌리티엑스포

2019.9.26.목 - 9.30.월 영광스포티움

주최